코로나19에도 지극한 승보 공양 눈길

조계종부산聯, '찾아가는 승보공양' 진행

제 10회 성도재일 기념으로
1월 8일까지 승보공양 진행
인원최소화, 방역규칙 지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성도재일을 맞아 구랍 26일부터 1월 8일까지 '찾아가는 승보공양'을 진행했다.

매년 성도재일을 맞아 진행된 조계종부산연합회 승보공양법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승보공양으로 전개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성도재일을 맞아 구랍 26일부터 1월 8일까지 '찾아가는 승보공양'을 진행했다.

먼저 조계종부산연합회는 구랍 26일 혜원정사에서 '제10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법회 고불식'을 봉행하고 첫 출발을 알렸다.

고불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고불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시작해 육법공양과 공양물 불단 봉정, 발원문, 화동 꽃 공양, 공양물 전달,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공양물은 연합회 회원 사찰 소속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았으며 장갑, 면도기, 마스크, 치약, 잣, 향로, 초콜릿. 스탠드, 조끼 등 다양한 물품으로 마련됐다.

이어 공양단은 스님과 재가불자로 구성돼 조를 구성했고 릴레이 승보공양을 진행했다. 먼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친견하고 공양물을 올렸으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주지 현문 스님, 조계종 전 교육원장 무비 스님,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 국청사 주지 계전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안국사 주지 원범 스님, 화엄법계사 회주 도업 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비구니 화엄회 묘선 스님, 순행 스님, 인지사 주지 법성 스님,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 전법도량 의장 만초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한마음선원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순으로 찾아가 공양물을 전달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부처님의 깨달으신 날, 성도재일을 성대한 행사로 축하하고 기념해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법회가 취소된 상황이지만 조계종부산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불자들은 승가의 거룩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의지를 더욱 굳게 세웠다.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은 법문에서 "재가불자는 수행자가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받은 수행자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수행해 다시 재가불자들에게 법으로 회향하는 것이 공양의 참된 의미"라며 "승보공양법회는 수행자와 재가자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성도재일 기념 '찾아가는 승보공양법회'는 BTN불교TV 다큐멘터리로 방영된다. 방영일정은 1월 20일 성도재일 특집 프로그램 및 2월 12일 성도재일 다큐설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한편, 승보공양법회 기념으로 선정한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상은 안병선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이 선정됐다.

부산광역시장상은 단체부문에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이 수상하며 개인부문은 백승완 부산보훈병원 병원장이 받는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신축 기념 도록 발간

소장유물 도록 〈범어사의 불화〉 발간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박물관 신축을 기념해 소장유물도록을 제작했다. 〈범어사의 불화(梵魚寺의 佛畵)〉는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는 불화의 각 도상과 내용 그리고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임진왜란과 화재 등 악재에도 지켜온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신축 박물관을 통해 시민에게 불교문화의 가치를 유구히 전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범어사의 불화〉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주제는 전각의 탱화이다. 범어사 전각에는 불보살과 신중 등 불화들이 족자나 액자 형태로 걸려 있다. 범어사는 대웅전 '영산회상도'를 비롯해 17점 작품이 문화재로 지정 받아 중요도를 인정받았다.

2부 주제는 전각의 벽화이다. 범어사 대웅전에는 내·외부 벽체와 목조 부재 위에 많은 벽화가 남아 있다. 많은 사찰에서는 중창 불사 및 보수 시 벽화가 유실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범어사는 현재까지 그 형태가 남아 보존되고 있다. 3부 주제는 야단(野壇)의 괘불탱이다. 사찰은 많은 대중이 모이는 특별한 법회 때 야외 괘불대에 대형 불화를 건다. 개산대재와 수계산림 등 불교 의례가 봉행될 때 야외에 걸어두는 대형 불화를 모아 소개했다.

4부 주제는 범어사 성보박물관 소장 불화이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범어사 및 범어사 말사 불교문화재를 보관, 전시, 연구하고 있다. 17세기 이후부터 근현대기에 이르는 소장 불화들을 소개하고 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박물관 신축을 기념하며 소장유물도록 집 제 3권 〈범어사의 불화(梵魚寺의 佛畵)〉를 발간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사찰은 종교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또한 쉼 없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각 전각이나 박물관에서 불화를 자주 접한다"며 "반면 불화 속 주제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다소 어렵게 여겨지기에 이번 도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역사와 문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불화의 도상과 내용, 그 가르침들을 소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범어사 성보물관은 신축될 박물관을 기념하며 시리즈로 도록을 발간 중이다. 2018년 첫 번째 도록 〈범어사의 전적(梵魚寺의 典籍)〉과 2019년에 두 번째 도록으로 〈범어사의 전각(梵魚寺의 殿閣)〉을 발간한 바 있다. 앞으로 불상과 공예품 등 항목별로 분류해 도록을 지속적으로 낼 예정이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올해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성 스님, 전주시장 표창 수여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이 서민들의 악성부채해소에 대한 공로로 전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구랍 28일 전주시민 39명의 부실채권 10억 6600여만원의 부실채권을 소각하고 후원에 참여한 종교계와 금융권 관계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장은 부실채권 소각에 도움을 준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원불교 전북교구 사무국장 김도영 씨와 박춘기 전북은행 여신관리부 팀장에게 전달됐다.

표창장 시상식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2016년부터 4대종교단체의 후원을 받아 부실채권을 소각해왔다. 부실채권 소각은 빚에 허덕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을 저가로 매입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주시에 부실채권소각대금을 전달하고 있는 전북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사진왼쪽)과 진성 스님

올해에는 원금 2억 5400만원, 이자 8억 1200만원 등 총 10억 6600여만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또 올해까지 4대종교단체의 후원을 받아 383명이 빚 63억 9000만원을 탕감해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왔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이번 부실채권 소각이 채무불이행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더해져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돼 새로운 출발이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전북봉축위원회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한 일인데 제가 상을 받게 되어 뭐라고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봉축위원회는 2016년부터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빛에서 빛으로'라는 슬로건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전주시에 전달해 서민들의 악성부채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향일암 여수시에 연말연시 물품전달

여수 향일암(주지 지인)은 연말연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자비나눔의 쌀(백미 5,000kg)와 kf-94 마스크 1만장을 마련해 지난 12월 30일 여수시(시장 권오봉)에 전달했다.〈사진〉

신도들의 공양미로 마련된 백미 5,000kg(10kg 500포)은 돌산지역을 비롯한 읍면동 홀몸 어르신과 복지위기가구 300세대와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지원되며, 마스크 1만장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골고루 전해질 예정이다.

주지 지인 스님은 전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것 같다. 작은 정성이지만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시기가 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향일암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돋이 관광명소인데,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나눔의 뜻을 펼쳐주신 향일암에 깊이 감사드리며, 사찰 스님과 신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지인 스님, 화엄사 사회국장 해덕 스님, 권오봉 시장 외에도 이영희 향일암 신도회장, 강정순 총무, 박성미 시의원, 이미경 시의원, 이광일 도의원 등이 참여해 전달식을 축하했다.

한편 향일암은 굿월드자선은행 외 3개 단체 정기후원 등 매년 1억 원 상당을 후원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보현회, 결핵환자 건강과 포교 후원

구랍 27일, 360만 원 상당 후원금 및 물품 지원

부산 보현회 회원들이 결핵환자를 위한 포교와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자비나눔도량 보현회(회장 안성이)가 구랍 27일 보현정사에서 결핵환자 응원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사진〉

보현회는 매년 연말이면 결핵환자들을 위한 국립요양병원 마산병원을 방문, 후원금 및 영양제, 간식 등을 지원하고 포교와 환자 돌보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나눔은 코로나 19예방을 위해 보현정사에서 나눔식을 개최하고 의의를 전달했다.

이날 보현회는 환자들을 위한 영양제 약값 100만원과 마스크, 떡, 과일 등을 담은 선물(230만 원 상당)을 전달했



으며 결핵환자를 위한 포교원 관해사에 난방비 30만 원을 아울러 후원했다. 보현회는 관해사와 30여 년 동안 인연을 이어오며 결핵환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현재 관해사는 영양제 지급 및 정기 후원 활동으로 결핵환자 돌봄과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 대안가정 자운영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종사, 방생 자비금 모아 백미로 회향

양산 정종사가 방생 동참금을 모아 백미 나눔으로 회향했다. 자비도량 정종사(주지 여해)는 구랍 28일 정종사 반야보전 앞에서 '자비나눔 쌀 전달식'을 봉행했다.〈사진〉

백미는 총2600kg(850만원 상당)이며 양산통도사 자비원에 전달됐다. 자비원은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백미는 자비원 서비스 대상 700세대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200여 가구를 선정해 전달됐다.

주지 여해 스님은 "보시바라밀이 최고 공덕이다"며 "정종사는 항상 투명하



게 보시금을 관리 공개하고 있다. 신도님들의 보시금을 모아 잘 전달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정종사는 보시 바라밀을 강조하는 신행으로 자비심을 개발하도록 돕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견강암, 팥죽 나누며 코로나 극복 응원

부산 견강암이 팥죽을 나누며 코로나로 지친 상인들과 시민들을 위로했다. 자비참회도량 견강암(주지 향공)이 구랍 18일 부산 사상구 모라동 일대에서 '코로나 19 극복 팥죽나눔'을 진행했다. 견강암은 다가오는 동지에 새 희망을 선물하고 코로나로 인해 지친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사진〉

팥죽 1000그릇을 마련하기 위해 견강암 자비나눔 봉사팀 정각원 회원들이 함께 동참했다.

주지 향공 스님은 "정각원 회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며 모두가 팥죽 나눔



에 십시일반 동참했다. 회원들의 가족들까지도 묵묵하게 동참해준다"며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마음을 훌훌 털고 상인들과 시민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견강암은 매년 장학금 및 백미 전달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재주기자

"춥고 배고픈 이들 미소 짓게 하고 싶어"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코로나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웠습니다. 독거 어르신들과 소외 이웃을 위해 반찬을 통에 담고 손편지를 적었습니다. 정성과 마음을 함께 전달해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길 바랐습니다. 그 분들의 미소가 저의 보람입니다."

장유정 사단법인 미소원 이사장〈사진〉이 구랍 17일 부산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상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상장 전달로만 대체되었으나 부산동구자원봉사센터는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표창장 수상을 축



하했다.

장 이사장은 "10년 전 미소원을 창립하며 저는 미소원에 출가를 했다고 생각했다. 그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사, 혜암당 성관 스님 추모다례재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혜암당 성관 스님의 19주기 추모다례재를 구랍 31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혜암문도회장 성법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사진〉

혜암당 성관 스님은 1920년 3월 22일 태어나 14세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7세에 일본으로 유학해 동양철학을 공부하던 중 조사어록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다. 1946년 해인사에 입산해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고 1967년부터 해인사 소임을 살았다.

성관 스님은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에게 수행정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스님은 해인사 주지, 원로의원, 원로의장을 역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